



## 카길 5월 중순부터 콩가공 공장 휴업 예정

(2013.5.4. 로이터통신)

원제: Cargill says it will idle Indiana soy processor mid-May

04-May-2013 09:09

미국의 곡물 기업 카길은 인디애나주 라피엣에 있는 콩가공 공장이 5월 중순부터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카길 대변인 Mark Klein은 5월 중순부터 한동안 라피엣 공장에서 콩 분쇄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공장의 휴업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물 시장의 정보원은 라피엣 공장에서 콩을 분쇄해 대두박과 대두유를 생산하는데, 그 수익마진이 얼마 되지 않아 공장 가동을 중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봄 9년 만에 공급량이 최저로 줄어들어 공장은 대두 대외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농가들은 높은 가격을 기대하며 보유 재고량을 판매하지 않았다.

공장은 가을 대두 수확기까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곡물 업체 번기(Bunge Ltd)는 지난 달부터 수확기까지 옴포리아, 캔자스 지역의 가공 공장 휴업에 들어갔다.

라피엣 남쪽에 있는 발레로 에너지(Valero Energy Corp)사 소유의 에탄올 공장은 타이트한 옥수수 공급과 수익성 부진으로 지난해 6월부터 3월까지 휴업에 들어갔다.